

전북은행 Moody's 신용등급 A3로 상향

실질적인 자산의 질적 개선이 이뤄져 자산건전성·수익성 한층 제고
자본력 더욱 강화되는 등 모든 부문 안정적인 경영지표 추이 있어

JB금융지주(회장 김한)은 그룹의 핵심 자회사인 전북은행의 Moody's 신용등급(장기예금등급 기준)이 기존 Ba1 등급에서 A3 등급으로 1 notch 상향 조정되었다고 밝혔다.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인 Moody's는 전북은행의 자산포트폴리오 조정 정책이 효과적으로 수행, 실질적인 자산

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자산건전성 및 수익성이 한층 제고되어 자본력이 더욱 강화되는 등 모든 부문에서 안정적인 경영지표 추이가 있어 신용등급 상향 조건의 배경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Moody's는 금번 JB금융지주와 광주은행 간 포괄적 주식교환 이슈를

긍정적인 평가, 주식교환 후 그룹 자본력이 강화되어 자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이 한층 용이해지는 등 그룹의 경영효율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향후 그룹의 자본적정성 등 경영지표 개선추이가 지속된다면 현재 A3 등급을 부여받고 있는 전북은행과 광

주은행의 신용등급 상향을 추가 검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JB금융지주 관계자는 "광주은행과의 주식교환 등 당면한 현안사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자산포트폴리오 최적화 및 지속적인 수익기반 확대 등을 통해 자본비율 등 그룹이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지표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전략적으로 추진, 국내외 신용등급 향상 등 그룹의 신인도 및 경쟁력을 한층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건협 전북도회 지역 전문건설업 발전 위한 간담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장(회장 김태경)은 지난 25일과 26일 도내 실적상위업체 및 업종별 운영분과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도내 전문건설업체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를 통해 김태경 회장은 "건설업계는 공시품질 향상을 위한 적정공사비 확보, 정부의 건설산업 혁신방안 추진에 따른 대응방안 모색 등 여러 과제에 당면하고 있다"며 "협회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과 더불어 회원사의 권익을 보호, 경영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는 1,700여개 회원사로 구성된 단체로 17개 업종별 운영 분과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다.

/김영태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구독·광고문의 288-9700

NH농협은행전북본부, 올 상반기 '베스트뱅커' 9명 배출

고창군지부 정봉수 계장 우수상 수상

NH농협은행 전북본부장은 지난 25일 NH농협은행에서 육성하고 있는 NH Best Banker에 도내 직원 9명이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상반기에 선정된 전북지역 'NH Best Banker'는 고창군지부 정봉수 계장·정봉시지부 박혜민 계장·군산시지부 황성곤 과장·전북혁신도시지점 허무영 계장·전북도교육청(총) 신대현 계장·순창군지부 송기석 대리·이중지점 김성철 과장·수송동지점 백두원 계장·삼천동지점 이도경 계장 등이며 특히 고창군지부 정봉수 계장은 그룹별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직원들은 사

무소에서 최고의 금융서비스를 제공, 고객만족을 솔선수범하고 있으며 꾸준한 자기개발을 통해 급변하는 금융권의 환경변화에도 적응한 인재들이다.

'NH Best Banker'는 2016년부터 시작된 농협은행의 대표적인 사업 성장 지원 제도로서 우수 직원 선발 및 격려를 통해 사업추진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 확대와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입사 5년차 이내의 직원들이 금융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및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NH농협은행 전북본부장 김장근



은 "고객을 향한 따뜻한 관심과 신뢰가 농협은행의 핵심 경쟁력이며 'NH Best Banker' 우수 직원들이 누구보다 그 역할을 충실히 해주고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금융전문가로 도민에게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랑받는 은행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 말했다.

/김영태 기자

스타벅스, 고창수박 활용 '수박 블렌디드' 출시



고창수박의 변신이 새롭다. 고창군(군수 유기상)은 (주)스타벅스코리아와 함께 고창수박을 활용한 '수박 블렌디드' 음료를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전국 스타벅스 1180개 매장에서 만날 수 있는 '수박 블렌디드'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고창에서 생산된 당도 높은 수박과 요거트를 믹스하여 만든 음료로 달달하고 시원한 맛이 특징이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길거리에 좋은 여름 저녁과 일상의 힐링이 높은 고창수박을 이용해 수박의 히안 부분은 요거트로 표현하고 패션후르츠로 수박씨도 표현하여 실제 수박의 느낌을 잘 살린 음료를 선보이게 됐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국내 커피음료 프랜차이

즈 업계 1위 업체인 스타벅스 코리아(주)의 이번 '수박 블렌디드' 음료 출시로 고창수박의 우수성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며 "앞으로도 고창수박뿐 아니라

멜론, 딸기 등 다양한 농산물을 프랜차이즈 업계 진출을 통해 농기소득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서비스업 제외 도내 모든 업종 총생산 감소... 제조업 등 부진

한은 전북본부, 도내 산업별 성장 추이 발표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26일 전북지역 산업별 성장 추이를 발표했다.

그 결과로는,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전북지역 총생산(CRDP)이 감소, 기여도 측면에서는 제조업과 건설업이 전북지역의 성장세 부진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배경으로는 전북지역 제조업 수출부진에 따른 차동차 및 기계·감소, 국내 전방산업 부진에 따른 1차금속·비금속 및 금속기공이 감소했다.

또한, 건설업 부진은 대형공사 완료

후 새민관사업 등에서 신규 건설수주가 줄어들어 공공부문이 부진한 가운데 전북지역 주택가격 상승세가 타 지역에 비해 완만하여 민간 주택건설도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이에 따라 전북지역 경제는 신흥국 경제상황, 국내 건설경기, 지역 주택가격 등 다양한 요인들이 각 산업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기업 지원 및 유치 시 개별 산업의 업황을 고려한 정책 수립을 설명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 상공회의소, 하반기 일자리 지원사업 설명회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일학습병행제



전주상공회의소(회장 이선흥)는 올 하반기 일자리 지원사업 설명회를 회원기업 인사담당자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상공회의소 7층 대회의실에서 열었다.

전주상공회의소는 "정부의 청년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하반기부터 신규로 실시되는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의 종류 및 내용 등을 설명, 기업들의 의견의사항을 청취하여 기업의 고용난 해소, 경영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전주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서 청년추가고용지원금 사업에 대한 설명에 이어 전주상공회의소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재직

/김영태 기자

전북농협, 폭염 농작물 피해 농가 방문 위로·애로사항 청취



유재도 전북농협 본부장은 26일 서영교 운봉농협 조합장을 함께 폭염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남원시 운봉읍 노지 상추 농가를 찾아 생수 등 음료수를 전달, 피해 현황 점검 및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폭염으로 인한 기축피해를 분석한 결과 닭과 돼지 오리 메추리 등 폐사한 기축수는 228만여마리로 집계됐다. 특히, 전북은 66만여마리로 피해가 가장 커다.

유재도 전북농협 본부장은 "제12호 태풍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지속적인 폭염이 예상된다"며 "농업인의 안전과 가축 및 농작물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자"고 밝혔다.

한편 농작물의 경우 사과 1㏊ 일손 피해가 접수되었지만 무더위가 지속되면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태 기자

전북은행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

그 누구에게나 희망과 위로
그리고 힘이 되는
따뜻한 금융이 되겠습니다.